http://dx.doi.org/10.14400/JDC.2015.13.10.561

장애부모의 융복합 원예활동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강수정*, 정연수**
단국대학교 특수교육학과 박사과정*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조교수**

A Phenomenological Study on Convergence Horticulture Activity Experience of Mother of Child with Disability

Soo-Jung Kang*, Yeon-Soo Jeong**
Dept. of Special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PhD*
Dept. of Graduate School of Special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원예활동 속에서 경험하는 융복합적 생명력 체험이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서변화와 힐링에 주는 의미를 질적연구 방법을 통해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자료 수집은 경기도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 원예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 4인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자료분석은 개념화-소주제-대주제의 과정을 통한 핵심주제어 생성으로 진행하였다. 현상학적인 방법으로 탐색한 장애부모의 융복합적 생명력 체험은 인연의 시작, 보살핌과 교감, 생명체에 대한 이해, 힐링, 공유와 나눔으로 표현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장애부모의 생명력 체험 과정은 작은 인연에서 시작되었지만 교감과 보살핌을 통해 관계 맺음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생명력 체험 속에서 장애부모가 경험한 자신과 타자와의 관계 형성과정은 개인적 실존에서 타자와의 공감 그리고 공유의 과정으로 변화해가고 있음을 탐색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원예활동, 보살핌과 교감, 융복합, 생명력 체험, 현상학적 연구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process of convergence life experience by horticulture activity of mother of child with disability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The data collection consisted of interview data of two meetings with four participants and transcribed interview data. The collected data analyzed by coding process of conceptualization-subtopic theme-core theme. The result through the phenomenological research of this study appeared as start of connection, care and empathy, understanding about living things, healing, sharing, In conclusion, this study could search the process of relationship building with herself and the world behind her ,even though the process of convergence life experience of mother of child with disability started with little connection, as they became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relationship through care and empathy and sharing.

Key Words : Horticultural Activity, Convergence, Life Experience, Care and Empathy, Phenomenological Study

Received 12 August 2015, Revised 21 September 2015
Accepted 20 October 2015
Corresponding Author: Yeon-soo Jeong(Dept. of Graduate School of Special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Email: ysjeong@dankook.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장애를 지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장애유형이 무엇인가에 관계없이 쉬운 일이 아니다. 장애아동의 부모는 자녀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적응해가는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나 장애자녀를 양육할 때 필요한 정보 획득의 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특히 장애자녀의 주 양육자가 되는 장애아동 어머니의 부담감과 현실적인 어려움은 다른 가족구성원에 비해 더욱 크게 나타난다[1]. 일반적으로 장애아동의 부모들은 자신이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기치 못하며 막상 그러한 상황에 접어들어 자신의 역할을 지각하게 되면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 또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적 요소들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요구를 가지게 되는데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교육적, 경제적, 신체적 부담감을 느끼며 자녀의 반응양식에 적절히 대처하거나 자녀와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자녀의 적응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어 이것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2,3,4].

이로 인해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자신감 결여와 분노, 절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 사회적응과 여가생활의 어려움을 갖게 된다[5]. 장애자녀를 둔 양육의 주체자로서의 부모는 주어진 환경을 잘 극복하고 심리적 안정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좌절 등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부모들이 취약한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보호요인을 강화해야 한다. 장애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장애 자녀 한명의 문제가 아닌 가족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일반적 생애주기인 영유아기를 거쳐 성인기에 이르러 자립하게 되지만 장애인의 경우는 자립이 어려워 부모가 많은 부분에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원예활동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루는 것으로 육체적,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주고[6] 식물을 통해 자연의 변화에서 갖게 되는 안정성은 치유의 효과를 가져온다[7]. 원예는 집단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도와 집단 구성원간의 공동목표를 위한 공동작업으로 의미 있는 관계형성을 가지게 되고[8], 오감 자극 체험과 자신의 감정 및 내재된 에너지 표출을 가능하게 한다[9]. 원예활동을 통한 식물 기르기는 수확물 획득뿐만 아니라 양육의 보살핌을 통해 긍정적 보상을 얻기 쉽다. 또한 생명체의 변화를 관찰하고 경험하게 되면서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이끌어 갈 수 있게 되며 불안과 긴장을 완화 시키고 충동억제와 실패 및 좌절을 견딜 수 있게 만든다. 이러한 효과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계획, 준비, 판단을 가능하게 하며 결과에 대한 자기평가의 만족도를 높인다[10].

Relf는 원예활동을 통한 치유의 대상자를 중재를 이용하여 개선 될 수 있는 장애 진단을 받은 개인으로 규정하고 노인, 신체장애, 발달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 건강장애, 감각장애, 범법자, 약물남용자 등의 치료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11]. 이처럼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있어서 원예활동은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정서의 의미를 넘어서 그들의 세계에서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의 문제해결에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생명이 있는 식물을 다루는 원예활동은 식물의 성장과 다채로운 상황을 만들어 내는데 이를 통해 돌봄의 대상에게 책임감을 갖게 한다.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심리적 안녕감과 자기표현의 기회 제공을 위해 생명력 있는 식물과의 만남은 그들의 일상생활과 병행하는 가운데 치유의 매개체가 된다. 인간은 유전적으로 다른 생명 현상에 대한 친근감을 가지고 있어 식물에 대하여 본능적 편안함과 애정을 느낀다. 생명력 있는 모든 존재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하며 특히 식물과 인간이 갖는 공통된 생명력은 인간에게 긍정적 에너지의 상호작용을 통한 성찰을 갖게 하고 이러한 체험은 변화의 근본이 되며 인간을 치유하기 위한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12]. 이 연구는 융복합 원예활동 속에서 체험하는 식물의 돌봄과 나눔의 과정을 통해 장애아동 어머니가 자신에 대한 통찰과 자신이 사는 세계를 긍정적으로 수용해가는 과정을 질적연구 방법 중 하나인 현상학적인 방법을 통해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참여자 및 자료수집방법

연구 참여자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로 경기도 00시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관의 원예 프로그램에 참석한 4인의 어머니로 본 연구를 위해 면담시간은 1회는 30분에서 50분으로 이루어졌으며 2회는 40분에서 1시간 반 동안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장소는 장애인복지관 내 상담실 및 휴식 공간으로 마련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의사 확인 후 인적사항 및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인터뷰 전에 사전 동의를 얻어 녹취를 하고 녹음자료를 전사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1차 인터뷰 내용에서는 장애자녀 둔 어머니들의 원예활동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으로 참여동기와 실생활 적용 내용을 담았으며, 2차 인터뷰 내용은 정서적 안정화에 원예활동이 어떠한 부분에 도움이 되었는지, 양육과정에서의 어려움, 스트레스 등 현실적 상황과 극복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2.2 연구도구(원예활동 프로그램)

원예 프로그램은 2014년 4월 9일부터 10월 15일까지 총 26회기로 실내 활동과 식물원 견학 및 현장 실습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었다.

〈Table 1〉 Horticultural Activity Program

회기	Program process
1~3	orientation / understanding of horticultural activity
4	planting of spring flower
5	height hanger decoration
6	carnation floral arrangement
7	planting of hydrophonics flower
8	topiary
9	real floral arrangement of violet and yellow flowers
10	interim evaluation
11	botanical garden visit(Mulhyanggi Arborutum)
12	planting of herb flowers
13	feeling of cool summer through real flowers
14	making ornament through press flower
15	planting of succulant flowers
16	individual evaluation
17~20	practical exercise
21~25	visiting of related organization
26	final evaluation

2.3 자료분석방법

인터뷰 내용을 전사하여 개념화-소주제-대주제의 과정을 통해서 핵심주제 찾기를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및 내용과 자발적 참여에 대해 설명하였다. 면담내용 및 면담 참여자들에 대한 정보 비밀과 가명사용을 약속하였으며,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층면담 내용을 전사한 후 참여자들에게 다시 확인하였다.

〈Table 2〉 Coding of interview

sub theme	core theme	result	encoding	interview
from insingnificance to preciousness	starting of connection	experience of life power	PCD-D-1-5	In the beginning, each plant was not important to me, but now I have the mind that want to observe and to see it continue.
activity of child to protect life	care and empathy		PCD-A-2-15	I bought and cultivated a cartus five years ago. But it died to re-potting. So I bought it again and it grows well now. My boy puts water in it and transfers along the sunshine. He has a strong love about it.
pitifulness and preciousness of cultivating of plant	understanding of life power		PCD-A-1-8	It was so good because it's alive even though I thought it was dead. It is not alive but also grow freshly than before

* PCD-D-1-5: mother's name is 'D", that is Parent of Child with Disability and 1-5 is fifth sentence of first interview

2.4 연구윤리

본 연구를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및 자발적 참여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면담 참여자들에 대한 정보 비밀과 가명 사용을 약속하였고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심층면담 내용을 전사한 후 참여자들에게 확인 작업을 하였다. Eisner의 '연구의 신뢰성'확보를 위한 연구기준을 참고로 하여 증거가 구조적인지, 검증이 합의된 것이지, 참조는 적절했는지를 평가기준으로 하여 합의된 검증을 도출하기 위해 질적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 2인과 질적연구방법론 강의를 맡고 있는 질적 연구자 1인과의 검증과 피드백을 실시하였다[13].

3. 연구결과

〈Table 3〉 drawing process of the result

sub-theme	core theme	result
feeling of grazing and life power	start of connection	process of life experience
from insignificance to preciousness		
small but beautiful flowers		
motion of child to protect the flower	care and empathy	
child who change exclusion to love		
plant to change as well as degree of empathy		
attraction about life than splendor	understanding about life	
child to feel 'love=life' by the body		
pitifulness and preciousness about living		
spring of plant to spend the winter	Healing	significance of life experience
pleasure and peace of seeing		
heartache to forget through devotion		
change of child who was not familiar with expression		
significance of meeting to share the same thing	sharing	
formation of comfort and sympathy through association		
sharing and composure without expect		

3.1 융복합적 생명력 체험과정

3.1.1 인연의 시작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보았을 때는 나와 떨어져 있던 타자의 존재였던 식물들이 나의 관심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은 이제 나와의 인연 속에 관계를 맺어가는 하나의 존재가 되어 가고 있었다. 이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고 관계를 가짐으로써 존재하며 그 존재가 깨어질 때 존재도 사라진다는 동양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는 개별 현상보다는 현상 이면의 관계성을 보다 실제적으로 보는 의식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14].

그냥 스쳐 지나기 보다는 냄새도 한번 맡아보고 저건 무슨 냄새가 날까? 우리 애는 안 맡으려 해도 그래도 맡아봐라 하면 한 번 더 느끼게 되고 어떤 거는 예쁜데도 냄새 안 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못생겨 냄새가 없을 것 같아도 무척 향기로운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고(PCD-D-1-5).

하나하나의 존재가 대수롭지 않게 스쳐 지나갔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관찰해서 보는 마음의 자세도 생겼고, 원예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또 가서 보게 되고, 더 관심이 많아진 거 같아요. 식물에 대해서도 또 많이 들었으니까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상승효과를 갖는 거 같아요(PCD-D-1-20).

장애자녀를 둔 부모가 출산 후 자녀의 장애를 수용하기까지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출산 후 느꼈던 부정과 원망, 타협, 우울 그리고 수용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수용단계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타협의 단계가 보다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매순간 받는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은 삶의 일상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게 된다. 때때로 자녀의 성장이 느껴지면 장애의 수용이 받아들여지지만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문제행동을 보이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없을 때 깊은 절망과 상심이 그들의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때문에 직접양육자인 어머니는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상심과 우울이 그들 실존의 주체로서 받아들여지고 세상에서 홀로 존재한다고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시작한 어머니 동우회의 원예활동은 어머니 자신의 실존에 대한 몰입에서 미세하지만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3.1.2 보살핌과 교감

인간을 정서적으로 이해하는 중심에 '공감'이 있다. 공감에 기초한 '공감적 대화'는 엄격한 이성적 판단보다 정서적 교감을 중시하는 일종의 '감정적 성찰이다. 우리말로 공감 혹은 동감, 동정(심) 등으로 번역되는 'sympathy'는 '로고스(logos)'의 대응개념인 격정, 열정, 감정 상태를 뜻하며 '타자와 함께 혹은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의 상태'를 의미한다. 인간의 정신작용 가운데 감정영역에 속하는 공감(Mitgefühl, sympathy)은 감정이입(Einfühlung, empathy)과 함께 고통 받고 상처받은 인간을 치유하는 효과적인 기재로 사용되는 실천적인 철학개념이다[15].

한 5년 전에 500원짜리 선인장을 사서 5년 정도 키웠는데 잘 자랐었어요. 근데 분갈이를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화원에 맡겼는데 죽은 거죠. 그래서 또 작은 거를 사

다 일 년째 키우고 있는데 잘 크고 있어요. 아이가 매일 보고 햇빛 따라 다니며 옮겨주고 저녁 햇빛 남아있는 부분까지 돌려가면서요(PCD-A-2-15).

우리 아이는 자기가 만들어 온 것에 대해서 무한 애정을 쏟아요. 매일 물을 안주어도 된다고 해도 매일 물주고, 수경으로 키우는 거는 매일 뿌리까지 다 닦아주고 안 된다고 해도 계속해요. 또 우리 애들은 밖에서 사랑받지 못하잖아요. 학교든 어디서든 그래서인지 본인이 심어온 것에 대해서 조금만 말라 있어도 물주고 챙겨요. 식물과 우리아이가 교감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눈에 안 보이는 치료가 되는 거 같아요(PCD-A-2-11).

식물과 동물 둘다 정성을 쏟고 교감을 하는 건 똑같아요. 동물이 더 교감이 잘 되죠. 하지만 식물도 교감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교감을 하되 조금 더 일방적 인거 같아요. 제가 정성을 쏟고 이래야 결과물이 나오고 식물은 늘 살펴야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해요. 내가 가꾸고 있을 때 꽃을 피우고 새순을 내고 늘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에요(PCD-C-1-21).

보살핌과 애정을 쏟은 만큼 생명력으로 피드백을 주는 식물의 성장과정은 자신의 실존에 몰입해 있는 장애부모에게 정서적 안정과 함께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인식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생명력에서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위로 차원을 넘어서 장애부모의 삶에 대한 역동성을 나누어줄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는 용기로 나아가도록 했다.

3.1.3 생명체에 대한 이해

동양철학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논의할 때 '천인합일(天人合一)'을 강조한다. 이는 자연과 인간이 본래 분리될 수 없고 하나로 합쳐져 있다는 의미이다.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고 자연과 인간은 운명공동체라는 자연관을 강조하는 말이라 하겠다. 인간이 이미 살아있는 존재이니 인간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존재 또한 살아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다[16].

일단 식물을 봐서 좋고 집에 갖다 놓고 어떻게 자라는지 꽃도 피우니까요. 꽃꽂이는 처음엔 예쁜데 금방 죽으니까 일주일 되면 버려야 돼서 저는 화분에 심은 식물이 좋더라구요. 식물 보면서 자라고 꽃을 피우면 저에게 기쁨을 줘요. 그래서 꽃꽂이보다는 생화가 더 좋아요. 제가 아는 엄마 아이가 장애가 있는데, 꽃꽂이는 쳐다도 안본대요. 갖다놓고 관리를 안 하고 안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꽃은 애지중지한대요. 생명이 있는 게 더 끌리는 모양이에요(PCD-D-2-8).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난 걸 보면 너무 좋았어요. 진짜 애가 살아난 거뿐만 아니라 그전보다 훨씬 싱싱하고 지금까지 살아 있거든요. 그때는 이거 이제 시들었나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조그만 종류인데 오래되었어요(PCD-A-1-8).

생명은 다음세대, 다음 종으로 이어지는 존재의 확장이다. 스스로 창조하는 동시에 파괴하고 또 성장하기 위해 애쓴다. 인간이 존재하는 자연계는 스스로 생성과 소멸의 끊임없는 순환과정을 거치는 힘이 있다[17]. 원예활동이 인간과 식물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볼 때 인간은 식물을 통해 시각적인 유쾌함과 향기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즐거움, 그리고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와 로즈마리와 같은 허브류의 맛봄을 통한 오감체험 등을 통해 식물들과 관계를 지속해 간다. 오감체험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 자신의 손길로 식물을 다루는 활동을 통해 특별한 애착을 갖도록 하였다. 살아서 손길에 반응하는 식물에게 물을 주면서 어머니들은 생명의 의미를 가치롭게 이해하게 되고 반면 자신이 돌보던 식물이 병충해에 죽게 되면 마음 아파하게 되었다. 어머니들이 원예활동을 통해 느끼는 자연과의 교감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의 관계를 보다 의미 있게 변화시키는 순환의 과정이 되어가고 있었다.

3.2 생명력 체험의 의미

3.2.1 Healing

힐링(Healing)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에 주목하면서 타자에 의해 손상된 관계성을 회복하는 정신적 영역의 활동과 함께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미를 포함한다. 자아의 손상된 영(靈)은 그 손상의 원인을 밝히는 근본적인 작업과 함께 그 원인을 제거하고 새롭게 형성되는 타자와 자아와의 건강한 관계성 유지를 통해 회복된다[18]. 힐링은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신체의 나쁜 습관을 고쳐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것으로 육체의 병과 정신적인 병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하려는 활동을 의미한다[19].

정말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말라 죽는 것에 왜 이렇게 신경을 쓰나 하겠지만 거기서 생명체 하나가 나왔을 때 내 집 베란다 내 화분에서 작년에 심은 식물이 겨울을 나고 봄에 새순이 나왔을 때 받는 희열이 있거든요. 그럴 때 힐링이 많이 되죠. 정말 기쁘고 더없이 소중한 느낌이 많이 들죠(PCD-C-1-14).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하는 동안 몰두하면서 다 잊잖아요? 아무래도 내가 아끼는 게 생기니까 정서면에서는 참 좋은거 같아요. 어떤 사람은 동물을 키우는 사람도 있는데 모두 같은 공감대라고 생각해요(PCD-D-1-21).

일단은 책임감이 생겨요. 전엔 식물을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잎을 닦아주고 햇빛도 충분히 받게 해주려고 여기 저기 내놨다 하는걸 보면, 책임감에서 오는 건지 아님 사랑에서 오는 건지 식물을 돌보는 거 보면 드러나진 않아도 어떤 심리상태에서 무언가 일어나는 것을 엄마인 저는 느낄 수 있어요. 그전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거에 익숙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애정을 쏟는걸 보면 분명히 변화가 있는 거죠(PCD-A-2-16).

최근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힐링의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사람들의 외형적 삶의 질은 향상되었으나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불안감과 공허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장애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는 의료적 모델이 지배적인 한국사회에서 장애자녀를 둔 부모가 겪게 되는 스트레스 요인들이 이런 심리상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장애부모들은 자신에게 나타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들은 인간의 불안한 정서를 치유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20].

3.2.2 공유와 나눔

공감현상은 타인의 내적 체험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통해 타자의 체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이고 그럼으로써 타자의 자아를 체험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21].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는 대화를 통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함께 해결해야할 누군가의 존재가 절실할 때가 있다. 면담 중에 연구 참여자들은 '다른데 가서는 얘기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공유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해될 수 없고 그냥 메아리만 울리다 온 것 같다는 것이다. 장애부모라는 공유할 것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고 같은 주제로 함께 이야기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있었다.

원예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엄마들에게 장애자녀가 있어요. 활동 하면서 그동안 스트레스 받은 일을 얘기도 하고 그 정도일은 별거 아니야. 그렇게 서로 위안해주고, 서로 마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친구들한테는 가봐야 얘기 안 해요. 왜냐면 힘들겠다고 하면 끝이에요. 나만 초라해져요. 그래서 집안 모임에 가도 전혀 얘기 안 해요. 친구나 또 형제지간에 전혀 얘기 안 해요. 장애자녀를 둔 엄마들이 같은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으니까 얘기를 나눌 수 있어 좋아요(PCD-D-2-9).

너무 고마운 사람도 있죠. 그거는 뭐 다른 부분에서도 똑같은 거 같아요. 나눌 때 더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죠. 그거에 대해 너무 연연해할 필요는 없는 거 같아요. 내가 즐겁고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한 기대치만큼 안 좋아해도 또 그거는 그 사람의 성향이니까 거기서 내가 나누는 즐거움을 가지면 되고 또 나누고 싶은 거는 더 좋아하는 분께 찾아가서 하면 되니까(PCD-D-1-19).

나눔은 자신의 일부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은 '나와 너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는 신념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나눔은 공동체 의식에서 기인된 것일 뿐 아니라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에 대한 애정에서 나오는 행위이다[22]. 작은 식물의 성장과정에서 느낀 생명체에 대한 기쁨과 희열을 통해 자신의 실존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 연구 참여자들은 식물의 성장과 함께 자신의 세계관이 함께 성장해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한 긍정적 세계관을 누군가 함께 나눌 대상을 찾아 나눔으로써 그들이 경험하는 행복이 공유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4. 논의

이 연구는 식물의 돌봄에서 경험하는 융복합적 생명력 체험이 인간의 실존에 대한 의식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자신의 실존과 존재에 머무르던 의식의 세계에서 원예활동을 통해 보살핌과 생명의 이해, 자연과의 교감과 자신의 치유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다른 장애부모와의 공감과 나눔의 과정을 자신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발전시켜가고 있는지 그 과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그에 따른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가 원예활동을 통해 경험하는 생명체의 의미는 작은 인연에서 시작되었다. 처음에 그 존재 자체가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는 작은 식물들이 관찰의 대상이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작은 인연으로 시작되었지만 나의 관심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나와의 인연 속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존재가 됨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인연을 보살핌 속에서 확대해 가고 보살핌의 과정은 타자인 식물의 돌봄을 넘어서 자신의 실존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상처의 치유 그리고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다.

둘째, 융복합적 생명력 체험을 통해 나타나는 의미탐색 과정에서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경험한 '나와 타자인 꽃'은 '나와 너' 그리고 '나와 우리'의 공생관계로 변해가고 있었다.

M. Buber는 타자로서의 '너'는 생명으로서 '나'에게 다가오고 어둠으로부터 나에게 말을 걸고 나는 생명으로서 응답한다고 하였다. 너에게서 온 생명은 '나의 세계'를 열어 줄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언제나 나와 너의 관계에 다가와 '우리'의 세계를 열어주고 있다고 하였는데, 생명체와의 교감과 치유(healing), 같은 문제를 공유한 다른 장애부모와의 만남과 공감 그리고 자신의 긍정적 에너지를 나누어줌으로써 경험하는 행복감 등이 이를 의미하고 있었다[23].

결론적으로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원예활동을 통한 융복합적 생명력 체험과 이를 통한 치유 그리고 관계의 변화과정은 인간이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세계를 사유해 가는 과정으로 나타났고 이런 사유의 과정은 개인적 실존에서 타자와의 공감 그리고 공유의 과정으로 변화해가고 있었다. 위의 결론을 토대로 발전적인 후속연구를 위해 제언을 한다면 원예활동에 대한 연구가 일반적으로 정서적 측면에 대한 양적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후 연구에서는 정서적 측면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는 양적연구의 제한성을 보완하고 정서적 측면과 힐링의 의미를 보다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1] H. I. Jeon, "The effects of a parent-to-parent program on parenting stress, parental efficacy, and family empowerment in mo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PhD. Diss. Ewha Womans University, 2006.

[2] K. Y. Kim, Y. S. Lee, S. S. Kim, "A Path Analysis of Influence of Mothers' Home Environment,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Core Competency on the Life Quality of Mother Raising Chid with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 46, No. 3, pp.191-219, 2011.

[3] A. K. Choi, "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Parents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upon Parenting Support Program for Parent Empowerment",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9, No. 3, pp.263-281, 2012.

[4] J. S. Park, B. S. Seo, E. R. Kim, "The Study on Parental Competence of Mo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Special Education Research, Vol. 12, No. 3, pp.179-202, 2013.

[5] S. E. Wisebern, " Parents' reactions after the birth of a develop mentally disabled child",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84*(4):345-351, 1980,

[6] J. Sempik, Green care mental health: Gardening and farming as health and social care. Mental Health and Social Inclusion. pp. 15-18, 2010.

[7] R. Kaplan, "The restorative environment: nature and human experience", Environment and Behavior

January, 23(1) pp.3-26, 1991.
[8] D. Relf, “The Role of horticulture in human well-being and social development”, Timber press, Ore. USA, 1992.
[9] E. H. Lee, H. R. Gwak, H. S. Kim, “Theory and Practice of horticultural theraphy”, Seoul: Seoul woman University press, 2002.
[10] G. C. Son, S. S. Park, H. M. Boo, G. Y. Bae, G. Y. Baek, S. H. Lee, M. G. Heo, “Horticultural theraphy”, Seoul: Seowon press, 1997.
[11]D. Relf, “Volunteers:Implementtion therapeutic horticulture or supporting horticultural therapy”, Horticutural theraphy international symposium text, pp.23-44, 2006.
[12] J. G. Yoo, “Ecological view of the world and bioethics through buddhistic thinking”, Research of Life, 4, pp.300-321, 2001.
[13] E. W. Eisner, “The enlightened eye: Qualitatitive inquiry and the enhance-ment of educational practice”, New York: Macmillan, 1991.
[14] J. E. Yang, “A Study of Expressing Relationship in a Book by Using Holes as an Interactive Communication Tool”, Master. Diss, Ewha Womans University, 2012.
[15] B. J. Park, “Empathy and Philosophical Counselling”, Philosophy Includes, 36, pp.9-40, 2014.
[16] B. R. Park, “A Study of pictorial expression of eastern view of nature”, Master. Diss, Sookmyung Womans University, 2013.
[17] E. W. Jang, “Life Expression by Empathy with Nature”, Master. Diss, Dondeog Womans University, 2005.
[18] M. D. Son, “The meaning of [Cheonrokjib] from view of point of Healing”, Language and literature of Korean, Vol, 65, pp. 669-705, 2013.
[19] D. H. Lim, “Effects of Healing Dance on the Frail Elderly CVA Patients”, Master. Diss, Ewha Womans University, 2008.
[20] S. B. Lee, S. Y. Ryu, W. G. Song, “A Relation between Travel Experience and Psychological Healing”. Tourism Research, 38(1), pp.77-97, 2013.
[21] B. J. Park, “Sympathy and Philosophical Counseling in the light of Max Scheler’s Concept of Sympathy”, Seogang Journal of Philosophy, 36, pp.9-40, 2014.
[22] M. N. Jang, “Action Research on the Sharing Program as Moral Education for the Elementary Students”, Mas Diss. Chinju University, 2006.
[23] J. M, Pyo, “I and You”, Seoul: Munye Press, 1996.

강 수 정(Kang, Soo Jung)

- 2014년 2월 : 단국대학교 특수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14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특수교육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특수교육, 문화예술, 복지원예
- E-Mail : gaun70@naver.com

정 연 수(Jeong, Yeon Soo)

- 2007년 2월 :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교육학 석사)
- 2012년 2월 : 단국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장애인평생교육(교육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조교수
- 관심분야 : 직업재활, 장애인평생교육
- E-Mail : ysjeong@dankook.ac.kr